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오전 광주송정역광장에서 열린 광주송정역 관련 통합특별법 현장 설명회에서 광역교통체계 구축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광주시,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 연다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국 돌봄 전문가 700여명 참여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광주가 축적한 경험·성과 공유
 전문기관-RISE대학 공동주최로 지역-대학 연계모델 제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대한민국 복지체계 전환을 이끌어온 광주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책 확산의 중심에 선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3월27일)을 계기로, 광주가 축적해온 통합돌봄 운영 경험과 현장 성과를 전국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와 전문기관, 서비스기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실행 전략과 전국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라이즈(RISE)센터 및 대학 라이즈(RISE)사업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가 공동주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행사는 1부 기념식 및 기조강연, 2부 분야별 공개토론회(포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이 ‘돌봄, 지역이 주인공이 되다’를 주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전략과 지역주도형 통합돌봄의 방향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4개 분과로 나뉘어 총 16건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소그룹 형태로 운영돼 참석자가 관심 분과에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1분과는 공공의료돌봄, 방문구강교육, 방문맞춤운동, 방문다제약물관리 등 의료 기반 통합돌봄 사례를 다룬다.

▲2분과는 식사지원, 동행지원, 안전생활환경 개선,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밀착형 돌봄 모델을 발표한다.

▲3분과는 의료기관 협업, 사례관리 경험, 민관협력 서비스 연계,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등 등·자치구 현장 실무 사례를 공유하며, ▲4분과는 자치구-대학 협력모델, 서비스 품질관리, 통합판정체계 이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전문기관 협업 사례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부스를 통해 자치구 특화사업, 민관협력 모델, 돌봄 인재양성 프로젝트 등 광주의 현장 성과를 전시한다.

광주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세대 공동체 돌봄, 3세대 의료 돌봄으로 확장하며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지자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실행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돌봄정책의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 ‘통합돌봄’ 단위과제를 운영하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돌봄 정책과 연계해 돌봄 전문인력 양성, 현장 실습·연구, 정책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 라이즈(RISE) 통합돌봄 단위과제 참여하는 4개 컨소시엄(11개 대학)이 모두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장성~광주송정역~영광 수소열차 ‘HTX’ 도입

광주시, 광주송정역 국가전략 물류허브 조성... 교통물류거점·글로벌 트라이포트 구축

광주송정역이 철도-항공-항만을 잇는 ‘글로벌 트라이포트’의 출발점으로 도약한다. 또 장성을 출발해 광주송정역을 거쳐 합평과 영광으로 연결되는 광주신산업선에 수소열차 ‘HTX(Hydrogen Train Express)’를 도입해 서남권 광역교통체계를 새로 짤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광주송정역 앞 광장에서 ‘하나된 광주·전남, 호남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을 주제로 ‘전남 광주통합특별법’을 도입해 서남권 광역교통체계를 새로 짤다.

통합특별법에는 통합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조항 18개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광주송정역과 직접 관련한 특례조항 2개가 반영됐다.

제135조 ‘교통물류거점 지정 특례’는 광주송정역을 국가 교통물류거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광주송정역(철도), 가칭 김대중국제공항(항공), 여수광양항(항만)을 연계한 ‘글로벌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특별법에는 통합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조항 18개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광주송정역과 직접 관련한 특례조항 2개가 반영됐다.

제135조 ‘교통물류거점 지정 특례’는 광주송정역을 국가 교통물류거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광주송정역(철도), 가칭 김대중국제공항(항공), 여수광양항(항만)을 연계한 ‘글로벌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트라이포트’는 철도-항공-항만을 하나의 물류체계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국토 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고, 호남권 메가시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동취재부

건축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서비스 분야 및 장점

-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 대상 : 아파트(중공청소/관리, 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커머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유리창 드론 청소**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발전소·설비 청소**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변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공장 외벽 청소**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물 안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 태양광 패널 청소**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 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사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시공 전후 사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yuhan_drone1@naver.com yuhandrone_solution